

■ 제주자치도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쓰레기분리 '불편'... 생활안전은 '불안'

거주여건 만족도 공해·교통 ↑... 주거환경 ↓

제주도민들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여전히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상생활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48.7%는 평소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2017년(52.1%) 대비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은 59.5%로 주로 주 1~2회 참여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제주도민 음주율은 60.1%, 흡연율은 21.8%였다. 제주도민 비만율은 32.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공동 1위였다.

도내 종합병원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가 46.0%로 전년 대비 9.2%p 감소한 가운데 불만족 이유는 '긴 대기시간(38.4%)'으로 파악됐다.

병·의원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는 53.6%, '불만족한다'는 9.5%였으며, 주요 불만족 이유는 '치료결과 미흡(22.0%)'으로 나타났다.

▷ 주거·교통=도민들은 주로 '단독주택'(56.2%)을 희망했다. 40대 미만 연령층은 '아파트'를, 40대 이상은 '단독주택'을 선호했다. 거주여건 만족도에 대해 '공해환경', '교통환경' 분야 만족도는 증가한 반면 '주거환경' 분야는 감소했다.

거주지 내 주차공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45.5%로, 전년(43.1%) 대비 증가했으나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늘었다.

교통수단별 교통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버스 53.6%, 항공

기 48.9%, 택시 42.7%, 선박 37.5%로 나타났다.

▷ 환경=도민들은 환경 체감에 대해 '좋다'는 응답이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수질 58.7%, 대기 53.6%, 녹지환경 50.8%, 토양 42.9%, 소음·진동 38.0% 순이었다.

환경관리실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연경관 41.8%, 오름 41.2%, 꽃지왈 38.7%, 중산간지역 37.4%, 지하수는 25.7%, 연안지역 및 해안가 22.9%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편 이후 도민의 30.4%는 '편리해졌다', 30.9%는 '불편해졌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불편해진 주된 이유는 '배출 요일을 맞추기 어려워서'가 7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61.7%)',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

지 않아서(39.4%)' 등의 순이었다. (1+2순위)

▷ 안전=2018년 제주도의 범죄 발생건수는 총 2만7427건으로 전년(3만1368건) 대비 감소했다. 교통범죄가 877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력(5354건), 지능(4945건), 절도(2973건) 순이다.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두렵다'는 응답이 2017년 대비 증가했다. 상황별로는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 14.9%, '골목길을 걸을 때' 27.5%(남 11.3%, 여 43.7%)로 나타났다.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은 '국가안보(34.9%)', '건축물·시설물(29.4%)', '떡거리(29.1%)'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폭력범죄(60.6%)', '성범죄(60.0%)'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원기자 sycho@ihalla.com

안전 취약한 공동주택 제주시 보수비용 지원

제주시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30일사이 준공된지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중 안전관리에 취약해 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되는 분야는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에 대해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를 신청한 대상중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동일·유사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및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내년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12월 사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겨울비 내리는 제주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부터 도 전역에 내린 비는 26일까지 이어졌다. 한동안 포근했던 제주를 이번 비가 그치면 기온이 푹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0년도 1월 1일자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를 실시했다.

▷ 프로필 13명, 명단 14명
이번 인사 규모는 4급 승진 5명, 5급 승진 12명, 공로연수와 전보 등

총 54명이다. 주요 인사로는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등 5명의 서기관이 공로연수하고 교육훈련에서 복귀한 이정운 서기관과 진용범 서기관이 각각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

원국장으로 보직 발령됐다.

지방서기관은 문성인(소통지원관), 변숙희(감사관), 박승운(교육재정과장), 고남근(교육시설과장), 임희숙(교육전문위원) 등 5명을 승진·전보 발령했다. 사무관은 교육예산과 현미영 주무관 등 12명이 승진·전보 임용됐다. 전선희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7일 금요일 음 12월 2일 (9월)

기상정보



| 오전 | 강수 확률 | 오후 |
|-----|---------|-----|
| 30% | 제주 30% | 30% |
| 30% | 성산 30% | 30% |
| 30% | 고산 30% | 30% |
| 30% | 서귀포 20% | |

주간예보

| | | |
|----|-------|--------|
| 내일 | 맑음 | 5/12°C |
| 모레 | 구름 많음 | 8/14°C |

전통시장 감시다!!

| 전통시장명 | 장 서는 날 |
|----------|--------|
| 제주시민속오일장 | 2.7 |
| 한림민속오일장 | 4.9 |
| 세화민속오일장 | 5.10 |
| 해덕오일장 | 1.6 |
| 고성오일장 | 4.9 |

흐림

제주도는 흐리고 북부와 서부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4~6°C, 낮 최고 기온은 7~10°C로 예상되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0~4.0m로 일겠다.

| | |
|-----------|-----------|
| 해돋이 07:36 | 달뜨기 08:21 |
| 해질름 17:33 | 달짐 18:31 |
| 물때 | 간조 05:17 |
| | 23:17 |
| | 18:14 |

생활·안전 기상정보

| | |
|-------|--------|
| 식중독지수 | 감기가능지수 |
| 주의 | 높음 |

비 내린 제주 하루새 기온 '뚝'

최저기온 4~6°C 전망
기상청 "산지와 중산간
눈 내릴 가능성도 있어"

27일 제주지역 기온이 푹 떨어지면서 추위와 함께 곳에 따라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7일 제주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또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 1~5cm다.

아울러 북서부 해안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직 올해 12월 제주 해안 지역에는 첫눈이 내리지 않았다. 제주도 일도1동 제주지방기상청에서 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모습이 관측되면 올해 12월 첫눈으로 기록된다.

기온은 푹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하루 사이 6°C 가량 떨어져 4~6°C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으며 낮 최고기온도 6°C 가량 떨어진 7~10°C로 예보됐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28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화로운 겨울로 등 해발 400m 이상 도로와 산지에는 내린 비가 얼거나 눈이 내려 쌓이면서 결빙된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차량 운전과 등반할 때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